

한국-중국간 경영정보학연구의 다양성비교 : 1999년 ~ 2003년*

신호균** · 김영애***

〈 목 차 〉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선행연구	V. 토의 및 결론
III. 연구방법	5.1 토의
3.1 표본선정	5.2 결론
3.2 측정기준	참고문헌
3.3 측정절차	

I. 서론

경영정보학연구의 다양성은 연구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연구주체의 다양성에 이론적 근거가 되는 참고학문영역의 수, 연구방법의 범위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Benbasat and Weber, 1996; Robey, 1996). 이에 한국의 경영정보학 연구는 1989년 경영정보학회가 창설된 후 1991년 7월 ‘경영정보학연구’가 발간되면서 경영정보학연구의 머릿돌 역할을 하며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다.

‘경영정보학연구’는 2003년도 말까지 400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하면서 한국의 경영정보학

을 대변해 왔으나 이러한 양적 성장과 달리 경영정보학의 학문적 위상은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여 왔다.

국제학술지와 비교한 김기문 등(2005)에 의하면 연구주체, 연구방법, 분석단위, 참고학문 영역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영정보학연구의 위상에서 경영정보학연구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지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문화적 근접지대에 있으면서 경영정보학연구분야에서는 후발주자인 중국의 경영정보학연구 또한 이와 유사한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정보학연구의 다양성에

* 본 연구는 2009년도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교수, hkshin@kumoh.ac.kr(공동저자)

***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경영학과 박사과정 yakim@kumoh.ac.kr(공동저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다양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에는 어떠한 다양성이 존재하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한·중 양국의 경영정보학연구분야를 문헌연구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선행연구를 통한 양국의 경영정보학연구들의 연구다양성 평가와 연구논문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비교분석하여 양국의 연구다양성에 대한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향후 양국의 경영정보학연구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외국의 경영정보학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참고학문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단위 등의 관점에서 학문적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Hamilton and Ives, 1982; Culnan and Swanson, 1986; Farhoomand, 1987; Alavi and Carlson, 1992; Swanson and Ramiller, 1993; Benbasat and Weber, 1996; Robey, 1996; Barkhi and Sheetz, 2001; Vessey 등, 2002).

상호인용분석을 통한 연구분야는 Culnan (1986, 1987), 논문인용의 빈도수와 연구변수의 종류를 통해 경영정보학의 전파속도와 연구분야를 조사한 것은 Hamilton and Ives(1982),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경영정보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Farhoomand(1987), Alavi & Carlson(1992)가 있었고, 1987년부터 1992년 사이의 ISR(Information Systems Research)에 게재된 논문들의 분석을 통해 연구주제와 참고학문영역에 대한 분류는 Swanson and Ramiller(1993)가 있으며, 최근 Vessey,

Ramesh and Glass(2002)는 참고학문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단위 등의 4가지 기준에서 1995년에서 1999년까지 5개의 주요학술지 논문들의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영정보학연구는 1991년 7월 경영정보학 관련 논문만을 싣는 ‘경영정보학연구’가 발간된 이후 1974년부터 1993년까지 경영정보학의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으로 ‘경영학연구’, ‘경영과학’, ‘경영정보학연구’에 게재된 89편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백상용과 박경수(1995)의 연구가 처음이며, 그 후 강신철(1997)은 경영정보학 학술지의 통계적 기법활용 타당성 평가를 통해 새로운 연구방법의 분류체계를 정리하였으며, 서은경, 한인구(1997)는 경영정보학분야의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인용문헌분석을 통한 참고학문영역 분야의 상황정리를 통한 MIS분야의 인용빈도순위를 정립하였으며, 오재인(1998)은 경영정보학의 학문적 위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경영정보학의 학문적 위상을 분석하였다.

한편 김기문 등(2005)은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다양성 평가를 통해 Vessey 등(2002)과 한국의 경영정보학연구의 다양성 비교를 통해 세계적 학술지들이 다양성 기준영역들에서 독특한 색채를 띠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영정보학연구들은 경영정보학의 기초이론들을 심도 있게 구축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함으로써 점차 경영정보학의 학문적 위상이 위축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집중된 연구주제하에서 다양한 연구방법, 분석단위, 참고학문영역 등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최근 류영태(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정보시스템학회가 발간하는 “정보시스템연구”의

연구경향 분석에서 연구주제, 연구방법, 참조학문과 더불어 2001년부터 분류되기 시작한 색인에 따른 연구영역과 저자 및 연구비 지원 분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Yu Chen(2006)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경영정보학연구는 1980년대 초반 성장세를 보이던 경영정보학연구가 1980년대 후반 침체기에 들어섰고, 1992년부터 재성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수량적으로 증가하는 것일 뿐 단순한 개념적 분석이나 설명중심의 논문으로 전문 저널로는 부족하여 관련분야 연구를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연구 분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Wang Shan 등(2006)은 중국의 경영분야저널의 양적 성장은 있어 왔으나 MIS 분야의 질적 성장은 매우 낮은 편으로 MIS분야를 연구할 경우, 경영정보학 분야와 관련 분야의 구분이 모호함으로 MIS분야의 전문적인 저널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Ji 등(2006)과 Ji 등(2007)이 Vessey 등(2002)의 연구와의 차이를 1999-2003, 1999-2005년이라는 기간적 차이를 두고 비교하여 국제 학

술지와 중국의 경영정보학연구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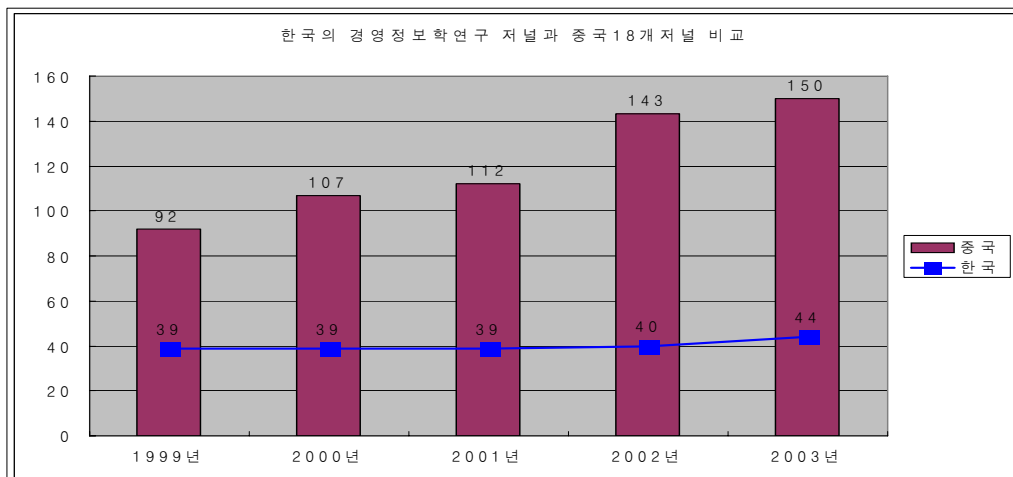
실제 두 번의 연구를 통해 중국의 연구는 2003년을 기점으로 경영정보학연구의 논문편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구방향의 변화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3.1 표본선정

본 연구는 한국의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의 다양성 평가에 관한 연구(김기문 등, 2005)와 중국의 정보시스템 연구(Ji 등, 2006)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경영정보학연구의 변화에 대하여 비교, 고찰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표본은 김기문 등(2005)에 의해 2000년-2003년 사이에 분류 연구된 “경영정보학연구”의 논문 162편과 중국의 Ji 등



<그림 1> 한국의 경영정보학연구 저널과 중국의 18개 저널의 논문편수 비교

(2006)에 의해 1999-2003년 사이에 분류 연구된 18개의 학술지의 논문 604편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1>과 같이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MIS 저널인 “경영정보학연구”를 대상으로 한 반면에, 중국은 18개의 정보학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논문 편수에서 양국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중국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전년 대비 28%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설명과 개념설명에 관한 단순 보고서 수준의 저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3.2 측정기준

본 연구는 Vessey 등(2002)이 경영정보학연구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한 참고학문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단위 등의 네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연구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참고학문영역, 연구주제, 분석단위는 Vessey 등(2002)에 의해 분류된 기준을 통해 비교하였고, 연구방법에 대한 비교 분류는 한국에는 Vessey 등(2002)의 분류기준을, 중국은 Vessey 등(2002)과 Alavi 등(1989)의 분류기준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이같이 서로 다른 분류기준을 사용한 것은 중국의 경우 단순설명과 같은 보고서 형식의 논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를 분류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표 1> 한국과 중국의 연구방법 통합 기준

연구방법		
분류기준통합	Ji 등(2006)-중국	김기문 등(2002)-한국
개념적 분석	Conceptual orientation	Conceptual analysis
개념/수리적 분석	Applied concepts	Conceptual analysis/mathematical
	Description of objectives	
사례연구	Case study	Case study
데이터분석	Secondary data	Data analysis
시스템평가	Ex post descriptions	Systems evaluation
실험실 실험	Lab experiment	Laboratory experiment-human subjects
현장연구	Survey	Field study
	Field experiment	
	Field study	
도구개발	Development of IS instrument	Instrument development
단순설명	Illustrative	해당없음

* Alavi 등(1989), Vessey 등(2002), 김기문 등(2005)의 연구를 중심으로 재작성함

3.2 측정절차

김기문 등(2005)에 의해 분류된 한국의 경영정보학관련 357편의 논문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세 명의 전문평가자들이 분류한 자료에 평가자간 신뢰도평가인 코헨의 카파계수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참고분야영역 0.75, 연구주제 0.81, 연구방법 0.74, 분석단위 0.76으로 Landis and Koch(1977)에 의한 카파계수 값이 0.61과 0.80사이에 있으므로 신뢰성에 다양성 분류의 값이 0.70이상이므로 분류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된 자료의 일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경영정보학 학문분야의 연구다양성을 비교분석하기위해 Vessey 등(2002)의 MIS연구의 값을 기준으로 양국을 비교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3년간 한국과 중국학술지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증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한·중간 참고학문영역의 다양성 차이는 $\chi^2=44.287$, $p(0.000) < 0.001$ 로 다양성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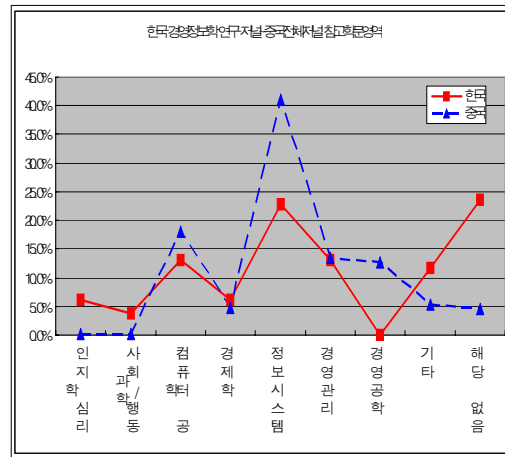
<표 2>와 <그림 2>는 양국간 참고학문 영역분야의 다양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한국은 분류가 미비한 해당 없음이 23.5%로 가장 높았고 정보시스템분야가 22.8%인 반면 중국은 정보시스템분야가 41.1%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컴퓨터공학분야 18%로 분류되었다.

즉 한국은 경영정보학연구의 이론적토대가

명확하지 않은 해당없음과 정보시스템, 컴퓨터공학, 경영관리 순으로 많았으며 중국은 정보시스템과 컴퓨터공학분야를 이론적 토대로써 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참고학문영역 비교

참고학문영역	한국	중국
인지 심리학	6.2%	0.2%
사회/행동 과학	3.7%	0.2%
컴퓨터 공학	13.0%	18.0%
경제학	6.2%	4.8%
정보시스템	22.8%	41.1%
경영관리	13.0%	13.4%
경영공학	0.0%	12.6%
기타	11.7%	5.3%
해당 없음	23.5%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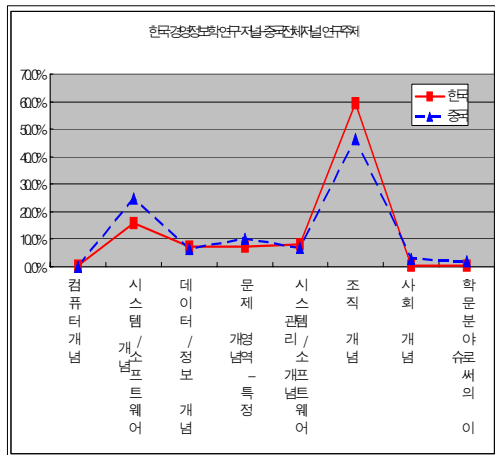
<그림 2> 참고학문영역의 비교

한중간 연구주제에 관한 다양성 차이는 $\chi^2=6.515$, $p(0.481) > 0.001$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표 3>과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연구주제 분야에서는 한중간 차이점이 없이 조직개념에 대한 주제 분야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념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제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 연구주제영역의 비교

연구주제	한국	중국
컴퓨터개념	0.6%	0.0%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념	16.0%	24.8%
데이터/정보 개념	7.4%	6.5%
문제 영역-특정 개념	7.4%	10.3%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리 개념	8.0%	7.0%
조직 개념	59.3%	46.4%
사회 개념	0.6%	3.0%
학문분야로서의 이슈	0.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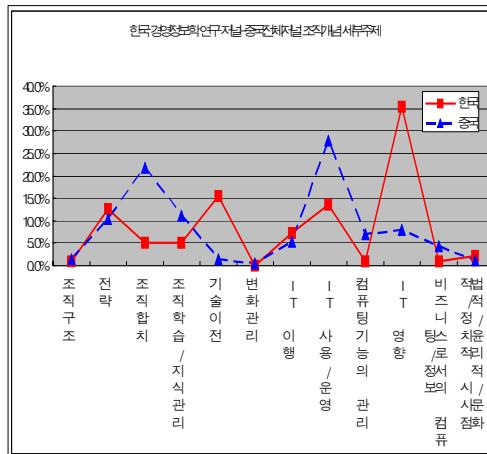
<그림 3> 연구주제영역의 비교

<표 4>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 양국의 연구주제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조직개념의 세부분류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조직중에서도 IT영향 35.4%와 기술이전이 15.6%로 높은 반면에 중국은 IT사용

운영 27.9%, 조직합치 21.8%로 나타났으며 한·중간 다양성을 비교하는 카이제곱 결과는 양국간 차이가 유의한 $\chi^2=55.153$, $p(0.000)<0.001$ 로 판명되었다.

<표 4> 조직개념의 세부주제

조직개념의 세부주제	한국	중국
조직구조	1.0%	1.4%
전략	12.5%	10.4%
조직합치	5.2%	21.8%
조직학습/지식관리	5.2%	11.1%
기술이전	15.6%	1.4%
변화관리	0.0%	0.4%
IT 이행	7.3%	5.4%
IT 사용/운영	13.5%	27.9%
컴퓨팅기능의 관리	1.0%	7.1%
IT 영향	35.4%	7.9%
비즈니스로서의 컴퓨팅/정보	1.0%	4.3%
법적윤리적문화적정치적 시사점	2.1%	1.1%



<그림 4> 조직개념의 세부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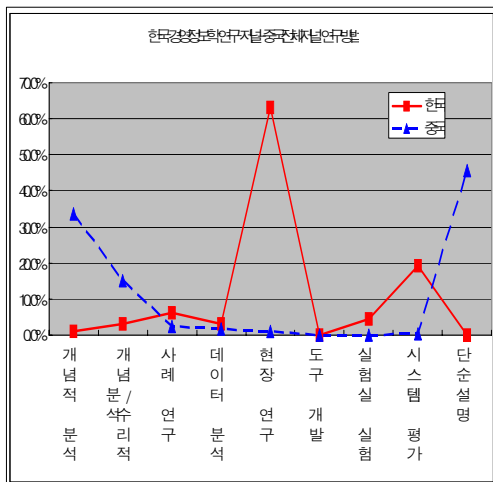
한·중 양국의 연구방법상의 다양성을 비교함에 있어서 기존 연구된 자료간 분류의 불일치가 있었다. 한국은 Vessey 등(2002)에 의한 분류를 하였고 중국은 Alavi 등(1989)에 의해

분류를 하여 <표 1>과 같이 두 개의 분류기준을 통합한 별개의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통합된 기준으로 차이를 비교한 결과 $\chi^2=167.574$, $p(0.000)<0.001$ 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표 5>와 <그림 5>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이 현장연구(63%)중심의 연구방법이라면, 중국은 단순설명(45.5%)과 개념적 분석(24.2%)중심의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양국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표 5> 연구방법의 비교

연구방법	한국	중국
개념적 분석	1.2%	33.5%
개념/수리적 분석	3.1%	15.2%
사례 연구	6.2%	2.3%
데이터 분석	3.1%	1.8%
현장 연구	63.0%	1.2%
도구 개발	0.0%	0.0%
실험실 실험	4.3%	0.0%
시스템 평가	19.1%	0.5%
단순설명	0.0%	45.5%



<그림 5> 연구방법비교

즉 <표 6>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현장중심의 사례연구인 실증적 연구가 많은 한국에 (95.9%) 비해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만을 도출하는 비실증적 연구(비경험 84.9%)가 많은 것이 중국저널의 특징이며 학술저널이라기보다는 단순 보고서형식인 질적 수준이 낮은 논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실 실험이나 시스템 평가비율이 없거나 낮은 것이 한·중 양국의 경영정보학연구방법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연구방법의 실증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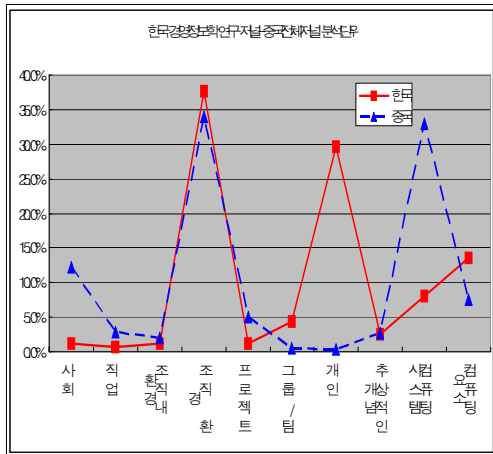
분류	한국	중국	미국
경험(실증)	95.9%	15.1	72.9%
비경험(실증)	4.1%	84.9%	27.1%

<표 7>과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단위에 대한 한·중 양국간의 다양성을 비교한 결과 $\chi^2=62.210$, $p(0.000)<0.001$ 로 양국간 분석단위에 대한 다양성은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국이 조직환경(37.7%)과 개인(29.6%)단위의 연구가 많은 반면, 중국은 조직(33.9%)과 컴퓨팅 시스템(32.9%)단위의 연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이 아직까지 개인적인 연구보다는 컴퓨팅 시스템 분석을 선호하는 것으로 경영정보학연구의 분석단위에서도 한국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중 양국의 참고학문 영역분야,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단위의 다양성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 연구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연구방법($\chi^2=167.574$)에 유의한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분석단위의 비교

분석단위	한국	중국
사회	1.2%	12.3%
직업	0.6%	2.8%
조직내 환경	1.2%	2.0%
조직 환경	37.7%	33.9%
프로젝트	1.2%	5.0%
그룹/팀	4.3%	0.5%
개인	29.6%	0.3%
추상적인 개념	2.5%	2.6%
컴퓨팅 시스템	8.0%	32.9%
컴퓨팅 요소	13.6%	7.6%



<그림 6> 분석단위의 비교

V. 토의 및 결론

5.1 토의

본 연구는 경영정보학연구의 다양성 분야에 대한 한·중 양국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중 양국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양국의 경영정보학연구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참고학문영역 분야에 있어서 국외학술지들(Vessey 2002, Alavi 1992)과 비교하여 볼 때 양국은 사회/행동과학 분야의 참고학문영역이 저조한 반면 정보시스템분야의 참고학문영역은 국외학술지들과 같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컴퓨터공학 분야는 국외학술지와는 반대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비해 정보시스템분야와 경영공학분야에서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인지심리학분야의 참고학문영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한국은 국외학술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참고학문영역의 분야가 확실하지 않고 개연성이 부족한 해당없음이 중국과 국외학술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양국이 참고학문영역의 연구자료 수집분야에 있어서 편리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경제학분야나 인지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참고학문영역 확대를 통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연구주제에 대한 내용면에서는 한·중 양국의 연구성향이 비슷함을 보이는 반면 국외학술지와 비교하여 볼 때 조직에 관한 세부주제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선택되어지는 국외학술지와는 반대로 한국은 IT영향, 중국은 IT사용/운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구주제의 다양성에 있어서 조직의 세부분야중에서도 시스템관리측면과 기술이전 비율이 높은 국외학술지와는 다르게 양국은 기술적인 측면의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념에 대한 비율과 IT분야의 주제선정이 높은 것으로 향후 경영정보학연구의 학문적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이 기술적 측면의 연구경

향을 줄여 나가는 한편 관리적 측면의 연구주제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양국의 연구방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국외학술지와 격차를 줄여가고 있는 한국에 비해 중국은 개념적 분석과 단순설명과 같은 보고서 양식의 연구에 치중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은 연구자료 수집을 통한 현장연구에 치중하고 있음이 차이점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향후 한국은 현장연구의 내용을 하되 현장연구를 지원해줄 도구개발이나 개념/수리적 분석을 통한 이론적 정립이 필요할 것이며 중국은 단순한 설명을 줄이고 학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평가, 실험실 실험, 도구개발, 현장연구, 데이터 분석, 사례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보다 심도 높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단위에 있어서 양국과 국외학술지를 검토해 보면 사회 분야와 컴퓨팅시스템 분야에 분석단위의 편중이 심한 중국과 비교하여 한국은 컴퓨팅요소와 개인의 분석단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개인과 조직환경, 그룹/팀 분야의 분석단위가 많은 국외학술지와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은 국외학술지와 비슷한 경향이 있는 반면 중국은 개인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양국의 분석단위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룹/팀제나 프로젝트, 추상적인 개념을 늘려가는 한편 컴퓨팅요소에 대한 분석단위는 줄여 나감으로써 경영정보학연구에 있어서 분석단위를 다양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국외학술지

들이 경영정보학연구의 종주국으로 다양한 연구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면 한국이나 중국은 후발 국가로서 기존에 국외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외국학술지의 연구기간이 1995년-1999년이라는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장경험이나 실증적 연구 분야(경험적 연구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후발 주자로서 중국의 경영정보학연구분야는 양적인면의 성장을 통해 개념적이거나 단순설명적인 요소가 강한 비경험적 연구분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의 경영정보학연구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단위, 참고문헌의 각 분야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국외학술지와는 반대로 경영정보학의 이론정립을 배제한 채 연구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나 경영정보학의 기초이론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하고 또한 핵심이론의 부재와 참고학문영역의 불명확화로 인하여 학문분야들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중 양국은 경영정보학의 독자적인 학문영역 확보를 통해 경영정보학의 이론정립은 물론 집중화된 연구주제를 통해 다양한 참고학문영역, 연구방법, 분석단위 등을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5.2 결론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요약하면 한국과 중국 양국은 네 가지 다양성 분야의 영역 중에서 연

구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김기문 등(2005)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은 명확하지 않은 참고학문 영역분야와 더불어 소수의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단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조직관련 문제에,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현장연구에, 분석단위에 있어서는 조직 및 개인단위에, 참고학문 영역에 있어서는 비교적 참고학문 영역분야가 명확하지 않는 해당없음과 정보시스템분야 및 컴퓨터 공학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또한 참고학문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단위에서 치우침 현상이 뚜렷하였으며 한·중간 비교 중에서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아주 근사한 방향으로 연구주제가 선택되었다. 즉 조직개념과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념분야에 대한 치우침 현상이 있었으며 이를 제외한 참고학문영역, 연구방법, 분석단위는 치우침 현상은 있었으나 그 분야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참고학문 영역분야에서 차이를 보면 한국이 명확하지 않는 참고학문 영역이 높은 반면 중국은 해당없음 비율이 4.5%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정보시스템 분야에 치우침 현상이 높은 41.1%를 보이고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한국이 현장연구에 치우침 현상이 높은 반면에 중국은 학문적 위상이 다소 부족한 단순설명 분야가 45.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논문형태로서 부적격 형태인 단순설명인 보고서 형식의 연구방법이 많으므로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부족함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단위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이 조직환경에 높은 비율을 보이는 치우침 현상은 비슷

하나 한국이 개인적인 분석단위를 많이 활용하는 반면 중국은 컴퓨팅 시스템적인 분석단위에 치우침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컨대, 본 연구의 시사점은 양국의 경영정보학연구의 다양성 연구에 있어서 한 분야의 치우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행연구된 연구자료 수집분야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선행연구들의 모형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형개발이나 모형검증을 위한 틀개발 등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참고학문영역의 정확성을 위해 관련된 학문이나 색인을 통한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논문 검색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연구주제선정을 위한 방법으로 개념정립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학문적 분야의 이슈나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경영정보학분야와 타 학문분야간의 비교연구를 통한 주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양한 연구방법의 습득을 통해 도구개발 및 분석력과 함께 분석력의 정확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분석단위는 한국은 직업이나, 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단위활용을 높여야 할 것이며 중국은 그룹/팀이나 개인단위의 분석단위 활용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1차 자료가 아닌 2차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한·중 양국간의 분석기간은 동일하였으나 분석논문의 대상이 한국은 다양한 경영정보학연구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동질성을 위해 경영정보학분야의 다양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학술지로서의

인정이 확실하지 않은 이질성이 많은 정보시스템 분야의 18개 분야의 학술지를 평가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최근 정보시스템연구의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인 류영태(2009)에 의하면 김기문 등(2003)의 연구에 비해 연구주제에 있어서 조직개념의 연구비율은 여전히 높았으나 시스템/소프트웨어개념이나 컴퓨터의 개념 및 데이터/정보 개념은 줄고 특정문제영역과 사회개념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연구방법에 따른 변화는 여전히 현장연구 분야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실험실 실험이나 시스템평가는 감소한 반면 도구개발 분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참고학문영역은 인지심리학, 경제학, 컴퓨터과학분야는 줄고 사회과학과 행동과학, 경영과학분야는 증가하였으며 참고학문영역의 불확실성을 높였던 기타영역이나 해당영역 없음의 비율이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중국은 기간의 차이가 적은 관례로 Ji 등(2007)에 의해 연구된 1999년-2005년의 결과는 1999년-2003년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본 논문의 또 다른 한계점은 시대적 동질성을 강조한 나머지 타 분야에 비해 발전과 변화의 다양성이 많은 경영정보학 분야의 최근연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향후 양국간 경영정보학연구를 비교함에 있어 기간적으로 동질성과 함께 경영정보학연구분야의 전문저널을 선택하여 양국을 비교함으로써 양국간의 경영정보학연구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학문적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타 국가를 포함한 국제적인 비교분석이나 기간별 분석 등 그 분석 대상과 평가 방법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통한 비교 분석이 경영정보학연구의 다양성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적, 지리적 근접지역 내지 유사지역간의 경영정보학연구를 비교분석하여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 또한 시사점을 가지는 흥미로운 논제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신철, 경영정보학 학술지의 통계적 기법 활용 타당성 평가, 경영정보학연구, 제7권 2호, 1997, pp. 77-102.
- 김기문 · 박충신 · 김준석 · 이호근 · 임진신,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 다양성 평가, 경영정보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5, pp. 149-170
- 류영태, “정보시스템연구의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2001-2008,” 정보시스템연구, 제18권, 제2호, 2009, pp. 35-59.
- 백상용, “질적연구의 의미와 한계: 양적연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정보시스템연구, 제15권, 제1호, 2006, pp. 239-254.
- 백상용 · 박경수, 한국 경영정보학연구 경향 분석:1974-1993, 경영정보학연구, 제5권 2호, 1995, 37-50
- 서은경 · 한인구, 경영정보학분야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경영정보학연구, 제7권 3호, 1997, 145-165.
- 오재인, 경영정보학의 학문적 위상에 관한 연구, 경영정보학연구, 제8권, 제3호, 1998, pp. 181-194
- Alavi, M. and Carlson, P., "A review of MIS

- Research and Disciplinary Development,"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8, No. 4, 1992, pp. 45-62.
- Barkhi, R. and Sheetz, S. D. "The State of Theoretical Diversity in Information Systems," *Communications of the AIS*, Vol. 7, No. 6, 2001, pp. 1-18.
- Benbasat, I. and Weber, R., "Research Commentary: Rethinking Diversity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7, No. 4, 1996, pp. 389-399.
- Culnan, M. and Swanson, E. B., "Research i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980-1984: Points of Work and Reference," *MIS Quarterly*, Vol. 10, No. 3, 1986, pp. 289-301.
- Farhoomand, A. F., "Scientific Progres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Data Base*, Vol. 18, No. 4, 1987, pp. 48-56.
- Hamilton, S. and Ives, B., "MIS Research Strategies,"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 5, No. 6, 1982, pp. 339-347.
- Ji, S., Min, Q., and Han, W.,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 in China(1999-2005) and International Comparisons,"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s in China*, Vol. 15, No. 2, 2006, pp. 76-85.
- Ji, S., Min, Q., and Han, W.,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in China: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Global Information Management*, Vol. 15, No. 1, 2007, pp. 1-17.
- Landis, J. R. and Koch, G. G.,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Vol. 33, No. 1, 1977, pp. 159-174.
- Robey, D. R., "Diversity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Threat Promise, and Responsibility,"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7, No. 4, 1996, pp. 400-408.
- Swanson, E. B. and Ramiller, 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Thematics: Submissions to a New Journal, 1987-1992,"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4, No. 4, 1993, pp. 299-330.
- Vessey, R., Ramesh, V., and Glass, R. L.,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 An Empirical Study of Diversity in the Discipline and Its Journal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19, No. 2, 2002, pp. 129-174.
- Wang Shan and Weng Gengdi, "An Evaluation of Chinese MIS Journals Based on Citation Analysis and Peer Evaluation," *Journal of the China Society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Vol. 27, No. 1, 2008, pp. 75-83.
- Yu Chen, Development of MIS in China, www.poweriac.com, 2006.

신호균(Ho-Kyun Shin)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경영정보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Strategic Journal of e-Commerce, Management Review: An Int'l Journal, Information Systems Review 등에 발표논문들이 있다. 관심 분야로는 IS/IT의 전략적 활용, e-비즈니스전략, 정보윤리, KM, m-commerce 등이다.

김영애(Young-Ae Kim)



한국방송통신대 및 영남대에 서 컴퓨터공학으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금오공대 경영정보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경북대 및 금오공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윤리, DB, e-비즈니스, m-비즈니스 등이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Diversity in MIS Research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1999~2003

Ho-Kyun Shin · Young-Ae Kim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diversity i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As a result, there is herding phenomenon regarding researches in both of the countries compared to other previous studies. There also seemed to be lack of in-depth study of basic theories and connection to related field of study considering the broad topics of management information, unlike other international journals that pursue diversity in control referencing various methodologies, analysis units and many citations. Therefore, both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stabilize theoretical base of MIS through securing independent field of MIS along with founding the fundamentals by searching in diversified fields, methodologies and analysis units with focused topics.

The upshot here is that with respect to diversity in MIS from both countries, to alleviate herding phenomenon, enforcing accuracy of data collection and reducing convenience pursuit should be implemented. Also as criteria to select a topic, different kinds of consulting concepts and taking social issues into consideration that helps tool development and analysis power should be done. Through varied methodologies, tool development and analysis power should be assisted and analysis unit should be shifted to organization unit for Korea and team or individual for China only to augment the accessibility.

As a limitation for the paper is that the data used in this analysis is secondary data. In addition, although time period used in both countries were the same, object of analysis had homogeneity in Korean case while Chinese one having heterogeneity from 19 different journals. For the future studies, multicultural comparison or time series analysis and their comparison in deeper approach with regard to object of analysis and methodologies can contribute to further MIS diversity.

Keywords: MIS research, Diversity, Research Topic, Research Method, Units of Analysis, Reference Disciplines

* 이 논문은 2010년 2월 24일 접수하여 1차 수정을 거쳐 2010년 5월 10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